



교육연합신문



2009년 6월 22일(월) 제 5 호

EduYonhap.com

구독 배달안내: 032-433-1633

‘기출문제’ 공개 기준 생기나 대학원 신설·정원 기준 완화

저작권 문제로 학교 시험문제 인용 ‘사실상 불가’ 구체적인 법적제도 있어야 논란 최소화할 수 있어

대입수능능력시험(수능) 다음 날 전국 각 입간지 등에는 전날 수능 문제에 대해 정답과 해설을 넣어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이 때 출제된 문제는 그 다음해에 학생들이 시험에 준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과거의 기출문제는 더없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참고서적에는 과거 기출문제를 게재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수능’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 기말고사 역시 학생들이 다양한 시험문제를 접하는 데에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제는 서적들이 이런 기출문제를 게재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점.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학습정보 공개를 통한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방안 제안” 토론회를 계기로 ‘학습정보 공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모 학습지의 학교 시험문제 사용 문제에 대한 재판에 대해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의 저작권은 교사들에게 있다.”고 판결, “출제교사의 저작

권’을 인정했다. 그만큼 교사들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정당한 고통을 인정한다는 내용.

이는 제3자가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반대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현실 또한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출제된 문제가 출판업계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일부에 국한되고 있고, 교사 개개인은 아예 자신의 문제가 쓰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넷’(www.edunet4u.net)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학생 개개인이 활용하기 위해 다운로드 하는 것은 상관없다”며 “다만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작권법의 내용(제30조, 제32조)을 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와 참고서적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거나 응용되고 있는 과년도 ‘수능’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거론하기 시작하면 (저작권)

에) 위배되지만 공익의 목적을 더 중시해 허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증 관련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일부 서적에서 과년도 문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사들이 자신이 만든 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며 “문제

의 질을 떠나 개인적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문제의 영리적 사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일단 ‘저작권을 보호해 영리 목적일 경우(사용자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할지는 사실상 개개인과 저작권자에게 맡긴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향후 벌어질 수도 있는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성인 기자 hsi@eduyonhap.com

자질있는 인력 만든다

입학사정관 전문양성 지원기관 선정

자질있는 인력부터 만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009년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응모한 14개 대학 중 사업계획이 우수한 5개 대학(경북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남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입학사정관제 정착의 핵심으로서 자질 있는 입학사정관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진됐으며, 입학사정관 희망자, 기 채용된 입학사정관 또는 대학 및 학교에서 추천받은 자,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및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의 이해, 입학사정관으로서의 기본소양 및 윤리의식 정립, 입학사정관의 역할 및 실무능력의 강화 등을 위한 다

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게 되며, 1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3~4개월 범위에서 주간반·야간반, 주중반·주말반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으로 60~120명을 교육하게 된다.

이번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거친 양질의 입학사정관이 육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향상 및 고교 교육현장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이해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협은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되는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지역 대학간 컨소시엄 및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별로 특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준 기자 ski@eduyonhap.com

학교자율화 방안 특집 3~4면

공문에 시달리는 교사 수업 소홀 11면

심도중학교 학교탐방 12면

국립대도 총 정원 범위내 자유롭게 설치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조정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원 등 설치 세 부기준 및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및 동 규정에 의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공·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신설 △수소도련 대학원 대학의 신설·증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분야 등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4대 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비율만 만족하면 설립이 가능해진 다.

특히 국립대도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문대학원 신설은 정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9월까지 전문대학원 신설 신청대학에 대해 전문대학원 신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설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조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행정 제재와 연계할 방침이다.

신승우 기자 ssw@eduyonhap.com



“열린 학교 부광중”

지난 12일 부광중학교(교장 조재천)에서는 ‘학교 공동체의 날’ 행사가 열렸다. 1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수업 참관’, ‘학부모 강연’과 함께 ‘제 1차 부광 점프스쿨 운영’, ‘2009 부광 꿈이 자라는 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 진행 상황’, ‘환경교육 시범학교’ 등 학교 운영 사업에 대한 안내로 이루어졌다.

2010 대입 재외국민 4518명 선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4년제 대학의 201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계획을 취합한 결과 모두 170개 대학에서 4천 518명을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학들은 대학별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재외국민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들의 경우 정원 제한 없이 모집이 이뤄진다.

자격기준은 영주교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2년 이상 거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상사직원 등 해외근무

자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특히 영주교포나 해외거주 상사직원 자녀 등은 외국에서 중·고등 학교 과정 연속 2년 이상 재학한 경우에만 자격기준이 주어진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면접, 필답고사, 수학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등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무배당 교보아이미래변액보험(연금플랜)

제13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무배당 교보아이미래변액보험(연금플랜) 상품특징

- 지녀교육자금과 노후자금을 동시에 준비 가능**
- 투자 수익에 따라 실질적인 보장자금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교육·노후자금 준비가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한 12회만을 통한 자산운용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 부모 유고 및 사고 등의 경우에도 자녀교육 가능(납입입원제약의 부가제)**
부모 사망, 장애자금을 50% 이상의 장애상시 차액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림으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자금의 안정적 수령을 보장받은 물론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보장도 가능합니다.
- 다양한 특약 부가로 부모와 자녀의 보장니즈 충족**
부모와 자녀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연 선택계약으로 각종 질병, 장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맞춤 연금설계 또는 직립투자형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
- 연금(사시)을 고액이 자유롭게 설정하고 중산연급, 특약연급 및 상속연급의 연금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1보험가치(연금계시 선 총료 후 지출을 제외) 및 보험(상시)비보합으로 하여 (무)교보아이미래변액보험(연금플랜(직립투자형)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교보에듀케어서비스 KEDs 제공**
발달진단, 영유아심리, 체질교육, 학습/유아지원 서비스 등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키워주는 교보에듀케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본계약은 은상수상권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연급 상품으로서 원금보장이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이계약은 은상수상권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에셋 어드바이저 한승희
061)727-2687
018-695-5000

KYOBO 교보생명